

# 억수로 좋네에 ~ 대구 청년들 광주에 폭 빠지다



11일 '달빛소나기' 참가자들이 광주시 남구 양림동 평권마을과 근대역사문화마을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주말·휴일 광주서 '한마음 행사'**  
문화전당·프린지페스티벌 투어  
양림동·환벽당·가사문학관 탐방  
양 지역 청년들 소통·교류 시간  
"10월 대구 행사서 다시 만나요"

'오매(五昧) 광주!' 대구청년들이 광주의 매력에 푹 빠졌다. 광주와 대구지역 청년 문화예술가들의 소통의 장(場)인 '2017 달빛소나기'가 지난 10일 광주시 동구 신양파크호텔에서 열렸다. '달빛소나기'는 (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하고 광주일보와 영남일보, 광주시, 대구시가 후원한 행사다. 광주·대구 청년의 유대 강화와 양 지역간 상생의 교류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 '달빛'은 '달구별'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상징하고 '소나기'는 '소통+나눔+기쁨'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광주를 찾아온 대구청년 40명의 첫 행선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였다. 민주평화교류원 5·18민주평화기념관을 시작으로, 해설사와 함께 문화전당을 탐방했다. 이어 금남로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 자유투어가 진행됐다. 거리극과 무용, 마임, 댄스, 퍼포먼스 등 금남로 곳곳에서 펼쳐지는 문화·예술행사를 보는 대구청년들은 놀라움과 즐거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아빈(여·안동대 유럽문화관광과 4년)씨는 "국·내외 축제에 관심이 있어 많은 곳에 다녀봤으나,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은 너무 인상깊었다"며 "먹을거리 위주의 형식적인 축제가 아닌 참가자 모두가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진짜 문화·예술축제"라고 평가했다. 문화전당과 프린지 페스티벌 투어를 마친 대구청년들은 신양파크호텔에서 광주청년들과 본격적인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윤정현 광주시장은 축사에서 "과거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지역감등을 후세에 넘겨줄 수 없다"며

"양 지역 청년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자리인 '달빛소나기'가 지역감정과 갈등을 허물고 상생해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소통·교류의 시간에는 프린지페스티벌 정형균 총감독이 무대에 올라 행사의 취지와 내용 등을 소개했다. 대구는 물론, 광주청년들도 그동안 몰랐던 프린지페스티벌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이자, 문화 기획을 하고 있는 두 지역 청년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됐다. 지역에서 행사를 열면서 생길 수 있는 민원문제 등 실질적인 고민부터, 지역의 특성을 담아낸 콘텐츠 기획 등 수많은 논의가 오갔다. 이후 청년들의 멘토이자 '생각을 선물하는 남자'의 저자 김태원씨의 '멘토특강'이 이어졌으며, 두 지역의 공영문화를 볼 수 있는 무대가 펼쳐졌다.

둘째 날인 11일에는 자유여행 형태로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 투어가 진행됐다. 선교사들이 모여 살았던 대구의 근대골목거리와 비슷한 분위기를 품고 있는 이곳을 둘러보며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다. 달빛소나기 행사는 환벽당과 가사문학관 방문을 끝으로 종료됐다. 광주참가자인 문화기획자 강수훈 스토리박스 대표는 "예술·문화·공연 등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두 지역 청년들이 모여 현실적인 고민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대구에서 열린 다음 행사에 참가해 서로의 문화를 비교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달빛소나기' 행사는 매년 광주와 대구에서 번갈아 개최되며 오는 10월께 대구에서 열린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지난 10일 광주시 동구 신양파크호텔에서 열린 '달빛소나기' 행사에서 광주와 대구지역 청년들이 윤정현 광주시장과 대구시, 광주일보, 영남일보 등 관계자들과 함께 화합과 소통을 다짐하며 기념촬영 하고 있다.



청년들의 멘토이자 '생각을 선물하는 남자'의 저자인 김태원씨가 광주·대구청년들을 상대로 강연 하고 있다.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 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